



소설가가 가족의 장남 못 다한 첫 소설집,
기억으로 밝혀낸 존재의 형식

첫 소설집 《유령》 낸 소설가 한동림

신예작가 한동림 씨의 첫 소설집 《유령》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동림 씨의 소설집 출간으로, 아버지 한승원 누이동생 한강으로 구성된 '소설가 가족'이 어떤 문학적 개성으로 입체화될지 평단과 독자의 큰 관심사가 된 것. 한강 씨가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이듬해 동림 씨가 같은 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바 있지만, 바지런히 소설을 발표하고 그것을 묶어낸 아버지와 누이동생과는 달리, 한동림 씨의 작업은 더딘 감이 있었다. 등단 10년 만에 갖는 첫 소설집이라는 꼬리표가 그것을 드러낸다.

“아버지와 동생은 기질이 흡사해요. 작품에 대한 몰입도, 작품을 쓰는 속도도 비교적 빠르죠. 그에 비한다면 저는 소설가로서 굶어죽기 딱 좋은 기질이죠. 단편 한 편을 쓰는 데 2~3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완전 탈고와 개작을 하는데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변명해 보자면, 《유령》은 지난 2001년에 묶을 수도 있었던 소설집입니다. 당시 준비하던 장편이 있었는데, 그것부터

먼저 선보여야겠다 싶어 작품집 출간을 미뤄두고 있었던 거지요. 장편의 진도가 좀체 나가지 않아 소설집을 먼저 내놓게 되었습니다.”

한동림 씨의 첫 소설집 《유령》은 ‘기억의 보고’라 이름할 만하다. 소설집에 실린 8편의 중·단편 속에는 어김없이 음지의 기억이 등장한다. 서사의 뿌리가 기억일진데 특별할 것이 무엇일까, 싶기도 하지만 소설 속에 등장하는 기억의 형태는 사뭇 다른 데가 있다. 의식의 바닥에 앙금으로 남은 수동태가 아니라, 기습적으로 일상을 잠식해 현재를 정지시켜 버리는 올무거나 덧의 꼴을 가진 능동태로 작용하는 까닭이다. 등단작 〈변태시대〉의 ‘그’는 삼류

극장에서 아내의 죽음을 떠올리며, <조난>의 '현숙'은 간혀 버린 겨울 산에서 안 나푸르나 등지에서 목숨을 잃은 박 선배를 본다. <귀가>의 '용민'은 귀갓길 버스 안에서 남루에 절은 아낙을 보며 어머니를, <빛바랜 흑백사진 속의 새벽 새>의 '영훈'은 창신동 '환희'라는 술집에서 대학동기 은주를 떠올린다. 소설을 읽고 나면 인물들의 현재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밑그림인 듯했던 기억만이 온전히 자리잡는데, 우리는 혹 기억이란 옷을 걸쳐 입고 산 것은 아니었던가 하는 성찰도 던져준다. <유령>과 <혹서의 계절>의 경우 기억은 화해의 악수를 청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소설은 팽팽한 긴장의 정점에서 정지되며 마무리된다. '소설가 가족'의 가족사적 관심을 앞서우느라 뒤늦은 진술이 되었지만, 이처럼 소설적 주제를 변주하고 해석해 내는 신예작가의 범상찮은 솜씨가 문단 관심의 우선이 되었음은 자명해 보인다.

“존재에 관해서는 수없이 많은 방식의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작가 저마다 던지는 질문은 다를 터인데, 제게는 그 주제가 기억입니다. 사고거나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존재를 잃어버린 것이죠.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운 이가 있을까요? 그런 기억이 존재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지리멸렬해질 만큼 기억에 천착했던 것은 아닙니다. 평론가 김형중 선생이 제 소설을 보곤 저도 의식치 못한 '아버지 부재'를 읽어주셨는데, 기억이란 주제도 제 의식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소설집 '작가의 딸'에는 아버지 한승원 씨에게 바치는 헌사가 담겨 있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그의 고독한 눈매에 가느다란 웃음이 걸리기를 희망하며”라고 쓴 정감 어린 문장을 보아서도 짐작되지만, 그에게 아버지 한승원은 아버지 이상의 존재다. 소설가 아버지 아래서 자라 소설과 인연을 맺은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철저히 이공계 체질인 그는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누이동생 한강 씨가 등단하던 해 낙선의 쓴맛을 보았던 그가 문학을 저버리지 못한 것도 변함없이 이정표로서 있던 아버지 때문이었다. 등단 이후 아버지의 관심은 독특하게 표현되는데, 그가 발표한 소설이 괜찮다고 판단되면 어김없이 전화를 준다. 그렇다고 한승원 씨가 수화기를 통해 구구절절 평을 늘어놓지는 않는다. “괜찮더구나.” 이 한 마디가 전부인 것이다. 그것은 '서로간 발표한 소설에 대한 언급은 짧을수록 좋다'는 소설가 가족의 불문율이기도 하다. 조금 길게 언급하는 경우라면, “아버지, 많이 팔렸습니까? 몇 판 들어간 거야” 같은 유머러스한 물음이 전부다.

“<핏빛 바다>만 빼고는 아버지의 전화를 모두 받았어요. 여태 써오던 작품과 다른 분위기의 글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가 봐요. 아버지는 문학만 껴안고 사는 선비 같은 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소설을 쓸 수 있도록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께 헌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소설 하나 남은 아버지께 소설 쓰는 자식이 헌사를 드리는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진하게 묻어난다. 실제 그는 “가족이 우선이고 소설은

차선이다”고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나 차선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는 않는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차선에 대한 욕심이 소설가 가족에게 바치는 가장 분명한 사랑의 방법인 것이다.

“소설은 엄숙한데 제가 사는 방식은 전혀 엄숙하지 않아요. 소설이 엄숙한 것은 아마도 제게 숙명적인 작가의 무언이 있다는 것일 테죠. 3년 전 출간을 생각했던 장편을 여태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봄내 작업을 해 탈고할 것입니다. 장편을 내고 나면 기질적인 작가의 면모를 살려 유쾌한 소설을 써볼 생각입니다.”

중·단편 소설이 읽히지 않는 시대, 숙명적인 작가의 읽히는 소설 <유령>을 흥미롭게 읽는 독법 하나를 기자는 전한다. 작가의 의도에 따라 배치된 소설을 버리고, 작품을 발표한 순서대로 작품집을 읽다 보면, 소설집을 읽는 재미는 배가한다. 등단작 <변태시대>가 기억이 어떤 방식으로 일상을 잠식하는지 보여준다면, 가장 최근작 <유령>은 기억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다. “유령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라고 '인숙'은 말하는데, 가뭇하게 존재하는 기억이란 곧 '유령'에 다름 아닌 것. 이 지점에 이르면 숙명적인 작가가 전하는 '기억으로서의 존재의 형식'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한편 한동림 씨는 여름 안쪽으로 장편이 나올 거라면서, 소설가 가족의 풍경을 얼마간 훑쳐볼 수 있을 것이라 귀띔했다. 그때 또 한번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딸로 구성된 소설가 가족의 '아름다운 동행'이 화제가 될 듯싶다. ■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제공 나상희



《유령》
한동림 지음 | 문학동네 | 272쪽 | 값 8,500원